밑바닥 인생서 일구어낸 삶의 흔적

특집시리즈 〈3〉 도시빈민 투쟁사 … 전빈련 결성 시기까지

80년 목동투쟁서 도시빈민 조직화의 가능성 표출
계층적 특성인 '유동성' 극복위해 대중조직 강화해야

글싣는 순서

〈1〉 좌담…도시빈민에 대한 이해를위하여
〈2〉도시빈민 계층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3〉**도시빈민 투쟁사**
〈4〉르포…빈민촌의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5〉빈민운동의 현 과제와 향후 발전전망
〈6〉소설

Ⅰ. 도시빈민의 투쟁과 조직화

도시빈민들은 자신의 단결을 구체화한 조직이란 무기와 그리고 실천 투쟁속에서 배우고 단련되었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오늘의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도시빈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몇가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과연 도시빈민들은 조직화가 가능한가 또한 전체 변혁운동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철거투쟁을 하다가도 지역이 해체되면 꿈처럼 사라져 버리는 대중조직과 투쟁, 노점상이란 직업이 또다른 자영업으로 바뀌어 버리면 투쟁을 한번의 아편주사처럼 보는 이가 함께 하는 대중들을 안타깝게 만든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도시빈민의 대중조직화는 힘들다고 말하거나 지금도 믿고 있다. 때문에 현존하는 대중투쟁과 조직마저 당장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도시빈민들의 고립 분산적인 존재는 노동자와의 연관성도 찾기 힘들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변혁운동에 도시빈민을 배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답은 단연코 아니다!

먼저 도시빈민들의 특성 특히 유동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시빈민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활형태나 살고있는 지역에서의 소모임을 통한 조직화가 아니라 당면한 투쟁속에서의 대중조직 건설이다. 투쟁을 통하지 않는 조직은 계모임일 뿐이다. 그리고 철거투쟁이나 노점상 투쟁등을 통해서 성장한 대중들, 즉 선진대중의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도시빈민들의 자연발생적이고 개량주의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집체가 전국빈민연합(이하:전빈연)이다.

또한 전빈련은 당면한 철거투쟁을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주거문제에 관한 투쟁으로 추동시키면서 실제로 임대주택 쟁취와 대량건설이라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그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진출하기 힘든 영역 혹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일반민중들을 위한 적들에 대한 선전과 정책마련을 위한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주거, 교육, 의료, 국민연금제도, 실업수당 등의 문제를 전체 민족민중운동의 주요한 투쟁방향으로 설정하게 하는데에서 자기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도시빈민 운동은 자신의 위상과 역할이 있으며, 이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중조직을 건설해 냈고, 대중투쟁을 조직하는데서, 도시빈민의 조직화와 투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임을 전제하면서 이글을 시작한다.

Ⅱ. 도시빈민의 대중투쟁사

도시빈민의 대중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철거저지 투쟁과 임대주택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단속저지와 전노련의 합법성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노점상연합' 그리고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삼권을 보장받기위해 활동하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 등 크게 세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탁아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 등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실제 도시빈민 운동을 추동하고 있는 철거투쟁과 노점상 투쟁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들은 80년 광주민중항쟁의 경험과 반성에서 80년대의 변혁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전체 변혁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받아온 운동이 도시빈민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80년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의 도시빈민들(구두닦기, 청소부, 막노동자들, 그외 일용공들)의 최후까지의 투쟁과정에서 그 싹을 보았고 이것은 곧바로 노점상의 조직화와 목동투쟁에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점상 투쟁은 88년 6월 13일 성균관대에서 "노점 단속저지와 생존 수호 결의대회"를 거치기까지 상당히 긴 잠복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철거투쟁은 지속적인 투쟁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먼저 철거투쟁은 목동투쟁을 통해서 도시빈민 조직화와 투쟁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투쟁을 통한 쟁취라는 귀중한 원칙을 배우게 된다. 특히 가두투쟁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선전선동할 수 있는 전술운용과 조직체계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시켜 주었다. 거의 같은 시기인 84, 85년도에 불이 붙은 가락동 일대의 강동지역 투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자연발생적이지만 최초로 "연대투쟁"과 "연대조직"을 사고하고 실천했다는 성과물을 남겼다. 그러나 규모에서의 투쟁력의 감소는 곧바로 파급력의 약화로 나타나 일정기간 침체를 겪게 된다. 그리고 상계동 철거투쟁에서는일반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소위 "주체역량의 강화"를 주요하게 고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연속적이고 산발적이지만 매우 치열했던 철거민들의 투쟁의 성과는 일단 "사당3동"으로 축적이 된다. 85년부터 시작한 사당3동의 철거투쟁은 목적의식적인 "지역간의 연대투쟁과 활동" 그리고 "도시빈민 대중조직의 건설"을 제안하고 추진했다.

즉 대중조직의 필요성과 대중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동력을 "자주성, 연대성, 정치성"으로 정착시키면서 "서철협"을 만들어 낸 주요 동력이되었다.

또한 사당3동의 주도아래 진행된 양평동과 창신동의 투쟁은 (87. 5. 24. 창신동, 87. 4. 13. 양평동 투쟁) 도시빈민 운동에서 종교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의 자주적 진출을 분명히 선언하게 하였고, 투쟁에 있어서도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적인 흐름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체역량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87년 6월항쟁의 열려진 정치공간과, 6월항쟁중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시빈민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철거민들은 87년 7월에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를 건설하게 되었다.

6·29선언으로 모든 재야와 학생이 머뭇거리고 있을때 노동자의 7, 8, 9월 대투쟁이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철거민들은 7·26 동대문 운동장 앞에서 도시빈민 생존권 쟁취투쟁을 벌이면서 민중생존권의 필연성을 문제제기 하였다.

대통령 선거 당시 서철협에 가해진 엄청난 철거와 탄압은 서울시내의 철거지역을 피바다로 만들면서 88년 4월 총선까지 이어졌다.

서철협은 다시 조직을 복원하여 88년 11월 16, 17일 양일간 국회의사당과 시청앞에서 도시빈민 생존권 쟁취대회를 벌였는데 이 집회에서는 철거투쟁의 목표를 "영구임대주택의 쟁취"로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시기 철거투쟁에서 중요한 요지에 있던 지역으로는 "사당2동" 지역이 있다. 사당2동은 "빈학연대투쟁의 전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당2동의 투쟁은 내부역량 특히 대중을 중심으로 세우는 조직활동에서 한계를 가졌고, 도시빈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했으며, 학생들의 동원력과 물리력에 모든것을 위존함으로써 빈민대중들에게 의타심과 환상만을 가져다 주었다고 본다. 실제로 사당2동의 투쟁의 성과는 대중들에게 남지 않았으며, 철거투쟁의 전선에 기여한 바는 무척 희박하다. 있다면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도시빈민들은 이러한 한계를 반성하면서 89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노점상형제들은 83년 모색기를 가지면서 84년 85년 계속되는 국제행사를 앞둔 탄압에 맞서 조직결성과 생존권 투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86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조직적 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86년에 "노점상 복지회"로 각지역에 흩어져 있던 계모임들과 상조회등을 모아 나갔다.

그리고 87년 6월항쟁이 일어나기전 5월부터 시작된 노점상 형제들의 투쟁은 지도부의 구속등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전국 도시 노점상 연합회"(이하:전노련)를 결성하면서 전국적인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6월항쟁의 성과를 민중 자신의 것으로 따먹으려는 민중들의 노력과 현명함을 볼 수 있는 중대한 걸음이었다고 평가된다.

그후 88년 4월 총선을 전후한 공청회를 통해 생존권쟁취운동을 명확히 하면서 투쟁의 방향을 확립하였다. 88년 6월 13일 성균관대에서 있었던 생존권 수호결의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3천여명이 넘는 노점상들이 조직동원되어 올림픽 기간에도 장사행위를 보장 받음으로써 대중적 기반을 보다 공고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89년 공안정국의 한파는 노점상을 희생물로 잡게 되었는데 7, 8월 대탄압이 그것이다. 이때 전노련은 7·26일 6천여명의 형제들이 탄압에 대항하면서 38일간의 긴 명동성당 농성을 전개하였지만 역부족, 이후 상당한 조직적 침탈과 조직파괴를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해 전노련은 그간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민민운동과의 연대"와 "정치적 투쟁"을 자기방향으로 하는등 결정적인 반성의 계기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철거민과 노점상 형제들의 투쟁은 치열하게 발전해 왔으며, 도시빈민의 대동단결과 대동투쟁을 고민하면서 도시빈민 연합조직 건설을 추동하게 된다. 서철협의 제안으로 88년 8월 28일 성균관대에서는 "도시빈민 공동투쟁위원회" 건설을 위한 집회에서 도시빈민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노력은 전국 도시빈민 자주연합 건설 논의로 촉발되면서 89년 준비위원회를 준비하였고 89년 11월 11일 고려대에서 "전국빈민연합"(이하:전빈련)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후 전빈련은 국민연합에 가입하면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주거문제등을 통한 노정권의 폭로, 그리고 운동의 대중화와 민중진영의 결속에 기여하게 되었다.

Ⅲ. 전빈련의 투쟁원칙과 방향

80년대 도시빈민들의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투쟁을 뛰어넘어서, 또한 그러한 성과와 한계를 안고 전빈련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빈련은 도시빈민 운동의 의지의 결집체 정도의 수준이다. 때문에 전체 도시빈민을 포괄해내고 있지 못하며, 빈민운동단체들과의 결합도가 낮다.

그렇지만 전빈련은 연대투쟁과 연대정신에 의해 추동 되어온 대중투쟁조직이다. 때문에 정치성과 전투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전체 민중운동의 강화에 기여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빈민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직업별 지역별 조직화등을 통해 물리적 힘과 정치적 힘을 기르면서, 민중연대투쟁의 내용과 방향을 충실히 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전빈련에 소속된 도시빈민 대중들 전체가 투쟁대상과 투쟁의 목적에서 변혁적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투쟁과 운동 그리고 민중해방을 위한 사상과 활동이 자신의 모든 삶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단 도시빈민운동만의 한계는 아니겠지만 민중해방 세상의 건설의 주체로써, 또한 자신들의 투쟁이 현존하는 사회구조의 질서를 밑으로부터 허물어 가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데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도시빈민의 대중투쟁과 조직은 이러한 의식적 고양을 충실히 하는데서 새로운 내부의 동력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국빈민연합은 완성품이 아니다. 전빈련은 이제 도시빈민의 조직적 정치적 구심으로써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으며, 민중운동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중투쟁조직이다. 우리들은 도시빈민 형제들이 자신도 노동자계급의 주요한 부분임을 자각하고 민중권력을 건설하기 위한 주체로 나가는 작업에서 도시빈민의 현명함과 위력적인 힘을 보게 될 것이다.

강 해 성
〈전국빈민연합 정책 차장〉

◀ 사진은 지난 88년 잠실 석촌호수 노점상 철거에 반대하는 노점상인들. — 대책없는 강제 철거 생존권을 보장하라 —

인터뷰

순창군 농민회 회장 김 충 권씨

"UR협상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민중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외세와 독재세력의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가을 농활은 농민들에게 일손을 덜어주고, 학생 스스로는 노동의 의미와 수확기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지난 여름농활에서 다져왔던 농민·학생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 반대투쟁등 실질적인 연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사일을 돌보랴, 쌀값제값 받기 투쟁·U·R반대투쟁을 준비하랴 분주한 김충권(풍산면) 순창군 농민회장은 학생들이 곧 온다는 말에 반가운 미소로 환영을 대신했다. 또한 김회장은 "농업·농민문제가 농산물수입개방과 정부의 파행적 농업정책으로 거의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야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농촌활동을 처음받은 마을이 오히려 호응이 좋아 가을에도 꼭 오기를 원한다."고 전하는 김회장은 문리대가 들어간 구림·쌍치면에서는 면단위에서도 농민회가 활성화되었다며 농민회가 강화된 농민의 의식의 발전을 조직적으로 묶어내는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지 못한점을 아쉬워했다.

"이번 추곡수매기간은 쌀 전량수매를 목표로 싸워나가야겠죠. 수입개방압력으로 거의 곡류등 모든 품목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내년부터 농촌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김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정책도 현재의 농촌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농민대회에서 보여준 단결력과 투쟁성은 U·R협상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못난(?) 농민들의 모습은 아니었다. 앞으로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군단위집회를 순창군에서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회장은 농번기라 조직적인 동원의 어려움을 걱정했다.

농민회와 마을에서 백발이 성성한 좋은 아저씨라는 평을 듣는 김충권회장은 7일 집회로 연행·구속된 이용대(쌍치면 내동마을)씨의 석방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농촌청년이 구속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저지한 경찰에게 돌 몇개 던졌다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래요. 또, 농성중인 전동성당에서 행패를 부린 전경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금치상죄에 적용되는 건 현행법의 책임성의 문제입니다."라며 김회장은 규탄대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내동마을에 들어갔던 사학과를 중심으로 학생들도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한 한국농업의 위기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민중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강대국 외세와 독재세력의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는 김회장은 "특히 굳건한 농학연대와 농민·학생의 상호발전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이번 폭우에 쓰러진 나락을 세울 손이 없는 들판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暎〉

社 員 募 集

참신한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주식회사 샤니는 야망있는 젊은이에게 21세기를 맡기고 싶습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전공과목	모집인원	공동사항
법·상경계열	법, 행정, 경영 경제, 회계, 무역	○○名	1. 91년 2월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및 90년 8월 졸업자
인문계열	국, 영, 일, 독문학과 불, 중문, 신방학과	○○名	2. 외국어 가능자 우대
식품계열	식품공학, 농화학 식품가공, 낙농, 축산	○○名	3. 관련부문 자격취득자 우대
공학계열	기계, 전기, 전산통계 산업공학, 전자계산	○○名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디자인계열	산업디자인, 도안 시각디자인, 응용미술	○名	

2. 근무처
(株)샤니 (株)파리크라상 (株)비알코리아 (株)태인산업 (株)태인유통

3. 근무지
서울, 성남, 부산, 대구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사소정양식) ····· 각1통
나. 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 각1통
다. 전학년 성적증명서 ····· 각1통

5.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필기시험(영어, 상식) 다. 3차 : 면 접

6. 서류교부 및 접수처
가. 교 부 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5번지 (당사 인사과 또는 학교 취업보도실)
나. 접수기간 : 1990. 10. 5~1990. 10. 12
다. 접 수 처 :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 10451 또는 당사 기획실 인사과

7. 기 타
가. 이력서 우측 상단에 연락 전화번호 명기할 것.
나. 전화문의는 서울 233-8391~5, 성남 2-5391~7(교환) 222, 223번

주요 사업 내용

최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온 (주)샤니는 업계 최초로 정부공인 종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종합식품 업체로 유통산업, 수출입업,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잠재력있는 기업입니다.

■ (주)샤니
달콤하고 맛있는 빵, 케익의 대명사 샤니는 전국에 4개공장을 갖추고 1일 3백50만개의 제품을 생산.

■ (주)B.R KOREA
미국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사와 합작투자로 580여종의 순수 천연 아이스크림 생산.

■ (주)파리크라상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프랑스풍의 최고급 베이커리.

■ (주)태인유통(LAWSONS)
세계적인 미국 Dairy Mart사와 기술제휴로 CVS(편의점) 체인점 운영.

■ (주)태인산업
식품 및 원료의 수출입업과 판매설비의 엔지니어링, 제작.

미래사회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식회사 샤니

다녀오기엔 너무 먼 나라
종로1번지에 갖다놓았습니다

1만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원서 대학교재
■ 모든 분야의 아시아판 및 원판 대학교재를 갖췄습니다
■ 각종 컴퓨터 매뉴얼 원서도 다양합니다.
■ 주요 언어권간의 외국어 사전류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각급 학위논문을 도와드립니다
■ 지난 1백년간의 구미지역 각종 학위논문, 전세계 1만3천종 정기간행물의 내용, 세계적인 희귀본 도서, 세계 각국의 정부기록 문서까지 제공해드리는 미국 U.M.I사의 우리나라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 미·영·불·독·일 등 24개 선진제국이 가맹하고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간하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수입·배포합니다.

세계를 열어드립니다
■ 영어·불어·독일어·일어는 물론 서반아어·이태리어 등 세계 주요 언어권의 책들을 수입 공급합니다.
■ 별도로 주문하시는 책은 어느 나라 책도 열성을 다해 구해드립니다.
■ 세계 각종 언어의 회화학습교재와 오디오·비디오 테이프를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대한교육보험이 '국민교육진흥'과 '민족문화창달'을 위해 설립한 교보문고
서울·종로1가1번지 대한교육보험빌딩 전화 : 730-7891
교환-양서 272·273 일서 276 대학교재원서 274·275